

증기기관 기술이 산업혁명을 초래했고, 이후 인류 사회는 변모했다. 대형 기업이 등장하면서 인간은 제2의 인격을 창조했다. 인간은 이를 법인이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자연인으로 분리했다.

산업혁명 이후 현대사회에 이르면서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 무선 통신, 디지털과 같은 기술 혁신이 있었고, 우리의 일상도 크게 변했다.

이제 인류는 인공지능을 통해 그동안 축적했던 기술을 통합하면서, 더 큰 인류 사회의 변모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인간이라는 제3의 인격을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hood)’이란 유럽연합(EU) 의회가 2017년에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고안한 법률적 개념이다. 생각보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급이 늦어진 반면, 생성형 AI가 우리의 일상으로 먼저 침투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에 위협될 만한 인공지능 행위를 먼저 규제했다(유럽연합의 AI Act, 2025년 적용).

한편 멀티모달 커뮤니케이션, 온디바이스, 에이전트, 페르소나, 로보틱스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급이 임박해졌다. 빠르면 1~2년 안에 완전자율 주행 자동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소비자 시장에 출시되고, 관련 입법 활동들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전자인간 기술이 가시화됨에 따라, 전자인간 기술이 기존의 경제 질서를 흔들고, 국방과 직결되는 이슈라는 점을 예감하게 될 것이며, 관련된 정책 및 법안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류의 역사에서 보아 왔듯이, 인간의 탐구심과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에 인류가 얼마나 성장통을 겪을지, 그 끝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있다. 저자는 공학자이자 법률가로서, 그리고 인문학도로서 통섭의 관점으로 세상을 지켜보면서 벅차게 떠오르는 심상을 공유할 의무감을 느꼈다. 막연한 공상이나 무용한 사변이 아니라, 전자인간이 우리 일상으로 침투해 올 시간이 임박한 만큼, 그들을 지독하게 현실적인 도구인 법률의 잣대로 재어 볼 필요가 있다.

전자인간이 탄생할 기술적인 여건은 확실히 조성되고 있다. 무엇이 되어 인간과 공존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 책에서는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그려 보고자 한다. 따라서 제3의 법인격이 탄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대적 배경과 효용성, 적용 방법 및 파급효과를 파헤쳐 보았다.

폭넓고 구체적인 법률적 스펙트럼에서 전자인간의 실체를 검토했

다. 재미와 진지함, 가독성과 지식 전달 사이에서의 어중간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가지 장르를 이중접합하는 시도를 했다. 1부는 스토리이며, 2부는 교양이다. 스토리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전자인간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에 대해 상상하기 쉽도록 법정 소설처럼 창작했으며, 2부는 1부의 스토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배경지식으로 구성했다.

다양한 독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자인간과 관련된 현실적인 쟁점들을 가능한 사례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일반 독자들에게는 전자인간에게 나의 업무나 집안일을 맡길 수 있을지, 가족을 돌보게 할 수 있을지,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와 같이 앞으로 누구나 해야 하는 일상적 고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학생 및 교육자에게는 전자인간이 등장할 사회를 통섭적으로 이해하고 토론할 소재를 제공할 것이다. 예컨대, 토론의 큰 주제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효용성, 새롭게 떠오를 법률적 이슈, 인간과 신기술의 공존과 변영, 법인격을 가진 전자인간의 등장과 파급효과 등이 가능하며, 세부 주제로는 창작, 발명,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호, 대리행위, 책임재산, 가족구성, 신체 및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 손해배상, 범죄, 납세 및 국방의 의무 등이 가능할 것 같다.

한편 기획, 연구개발, 생산, 구매, 영업 판매, 마케팅, 재무, 회계, 법률 등 수많은 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과 사업가분들은 전자인

간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올 것인가를 이해하여, 전자인간과 상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IT 업계 종사자와 개발자에게는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슈가 정리되었으니, 새로운 기술 수요와 소구점 발굴 과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법률가에게는 전자인간의 탄생이 초래할 장래의 법률적 이슈를, 사회 과학자에게는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사회적 이슈를, 예술가에게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인간이 겪어야 할 갈등과 혼란이라는 소재를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변혁 시대를 맞이하여, 입법안을 개발하고 행정을 추진하며,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결국 전자인간을 만드는 우리 인간이 리더십을 가지고 전자인간과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앞으로 무엇을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본 책이 완성될 수 있기까지 응원을 아끼지 않은 친구, 동료 분들과 표지에 사용한 작품을 만들어 준 아들, 인내심 있게 지켜봐 준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남기고자 한다.

2025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며

배종성